■ 두 차례 "검찰 요청"…'윤산찬사' 구속자 특별사면 성사

책임 있는 자세 확실한 일처리…조계종이 달라졌다

"무상급식 대세 필요하면 종교도 납세"

총무원장 지승스님

문용권 교육감 환담

6월의 '윤산찬사' 로 구속된 불교계 인물이 최근 대통령 특별사면 특별사면 했던 동그라 조계종이 보여준 상심과 노력이 비로소 빛을 보다. 특히 현안의 원만한 해결이 빈가운 것처럼 이번 일련의 성숙한 종단의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원론적인 상황 발표나 성명서 발표가 아닌 실제적인 행동이 나섰고, 끝내 우뚝할 만한 결과물을 얻어지기 때문 있는 지혜와 학식만 갖춰지지 않고 지혜와 정행력에 자질력 면모라는 평가다. 총무원장 스님과 '항상 변신' 과 '원만하고 한 한도, 불가주도 본부 등 전문가들 통한 체계적인 대응 덕분이다. 종단원장 부의장 원장 스님은 "국민을 위한 종단으로 거듭 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특별 사면자 김정호 씨는 "국민의 정책을 선도하고 정치적을 중재이고 소외받은 이웃을 보듬고 그렇겠다.

특별 사면자 김정호씨는 "불교 전체 관심과 결정 사면자 김정호씨는 "불교 전체 관심과 결정 사면자 김정호씨는 "불교 전체 관심과 결정